

머치도록 보고싶은

새내기 여학우들에게



새시대의 당당한 주인으로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여성공동체 창조

제2대 아침혁명 종여학생회

가 드립니다.

내리보기

1

2

3

4

7

8

10

11

하나. 토하나의 인권 침해 - 성희롱

도움. 끝나지 않은 역사 정신대

세에. 통일의 걸림돌 국가 보안법 - 모질이 이야기

23

내리보기는 차례라는 뜻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은 용서 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에
용서 받는다는 이유로 길들여진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는
이 시대가 만든것일 뿐이다.
너희가 자별 당하는 것 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 또한
억압 당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사의 반을
너희가 배워야 하는 법을
누가 너희를 인간 이전의 여자로만 만들었는지
네가 정말로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이여
이제 스무살의 어디쯤에 서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총여학생회장-인/사/말 (김진선 경영94)

서로에 대한 따뜻한 믿음으로
함께 큰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언제나 이맘때쯤 되면 우리들은 활기에 차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벽찬 가슴을 억누르지 못하곤 합니다. 바로 새내기, 현내기들의 첫 만남이 있는데, 새내기 새로 배움터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자신의 4년 대학 생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것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 선배들과의 정도 뜨끈뜨끈하게 싹터서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6학번 새내기 여러분께 설레는 가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총여학생회는요... 언제나 통일 아주 1400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책임지려는,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픈,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입니다. 아주대 내에서 여학우는 소수인 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가지 부딪치는 문제점들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여학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쌓아놓은 벽을 먼저 허물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남학우 여학우가 서로 남이 아닌 작은 손 내밀어 마주볼 수 있을 때 대학 생활은 가장 소중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400여학우들의 당당한 삶을 위해 제2대 총여학생회는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내기 여러분들의 치차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새터에서도 열심히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여/학/생/회 소개● 3

더이상 구색 맞추기가 아닌
하늘 아래 반쪽으로서
당당히 일어설 것입니다.

이제 96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특히 새내기 여학우님들을 뵙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글을 쓰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선한 얼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마 새내기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어찌하면 새내기 여러분과 대학이라는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년간의 제도 교육과 아직 우리 생활속에 산재되어 있는 남녀 차별적인 가부장제의 문화속에 길들여져온 여학우들의 소극성을 타파하고 남성들의 문화, 여성들의 문화가 아닌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저희 총여학생회가 해야 할 일일것입니다.

●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는 몇몇 일꾼들의 공간이 아닌 통일 아주 1400여학우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내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로서 여학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서기 위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10년간의 여학생회에서 벗어나 총여학생회로 일어서니 2년을 맞이하면서 아직 까지도 제기되는 총여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대중의 결여로 인한 주체의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체계의 미비로 인해 집행부 몇몇이 사업을 고민하고 진행, 평가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대 총여학생에서는 단대 여학생부 나아가 단대 여학생회를 건설하고, 학

부제 속에서 세분화된 학생회 단위 단위에 여학생 주체들을 세움으로서 총여의 체계를 굳건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단대 여학생주체들은 총여학생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운영위로서 자리를 잡고 집행부를 사업집행 단위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 아침혁명 총여학생회에서는..

새시대의 당당한 주인으로
21C를 선도해 가는
여성공동체를 창조해 갑니다.

해오름 축제

96년 총여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해오름식입니다. 고사와 공연등을 진행하고 신나는 뒤풀이도 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참된자리 여학생 휴게실을 남학우에게도 개방하여 함께 영화도 보고 토론도 하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참된자리 영화제

해오름 축제를 시작으로 참된자리 휴게실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리하여 아주대 내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보려합니다.

여학우 대동 한마당

기존 체제에만 국한 되어 있던 술잎제를 대동 한마당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진정으로 여학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단대별, 각 단위별 대항 체전을 벌이고, 여학우 가요제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취업 전망 토론회

5

여학우들에게는 또하나의 바늘 구멍-취업, 해마다 가중되는 대졸 여성의 취업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자주여성 민주남성 학교

옛날 오랜 동안의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이 땅위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남성들은 여성을 민주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들도 남성에게 기대려는 등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여는 여성이 자주적으로 서고, 남성이 민주적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주여성 민주 남성 학교입니다.

기획 대자보전

여태까지 일반 학우로서는 '문제 꺼리'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총여는 하나의 문제를 꼬집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자보전을 1년에 4회 열것입니다.

생활 문화 운동

생활 문화 운동은 퇴폐 향락적이고 성 차별적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대학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인의 모습은 우리의 문화를 저버린채 서구의 문화에만 물들여져 왔습니다. 이에 저희 총여학생회에서는 올바른 대학문화의 양산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생활 문화 운동을 펼칠 계획 입니다.

그 첫번째로 성 상품화 근절 운동입니다. 우리의 문화속에는 아름답아야할 우리의 성을 왜곡시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광고에서도 그렇고, 달력이나 포스터 심지어 컵이나 라이터에까지 여성의 나체사진을 붙여두거나 여서의 몸을 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서구의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를 여과할 여유를 갖지 못한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것을 하나 둘 잃어 가고 있고요.

6 그래서 두번째로 우리것 찾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중에 우리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떡보다 케익을 좋아하고 막걸리보다 맥주를 좋아하고 떡볶이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고 전통차보다 커피를 더 즐겨 마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거리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외국 유명 상표가 쓰여진 옷을 더 즐겨입고 우리말을 하는 중에도 몇 단어씩 영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대로 외국의 문화만을 따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것 찾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전통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년중 어느때 오셔도 총여에서는 녹차 향기를 맡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학내 환경 동아리와 연계하여 환경 운동도 벌일 생각입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등도 공해의 심각한 주범이지만 우리 생활속에서도 얼마든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쉬운 예로 분리 수거나 이면지 활용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 관☆ 광고 하나 ⇒ ●여/성/문/제/연/구/회

여러분을 여·문·연에 초대합니다!

우리와 꼭 함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도 저희는 만족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랑 같이 호흡할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올바른 가치관을 필수 있도록 여·문·연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여성문제연구회 건준위 >

여성 문제 연구회



●한국속의 또하나의 사회 기/지/촌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뿌리내린

기지촌 주변의 현실과 짙어진 우리의 자주권...

기지촌이란 원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과 거주지를 말하는데 대개는 미군들과의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기지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45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부터 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남편과 자식을 잃고 생활능력을 잃은 부녀자들 그리고 살길이 막연한 피난민들이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 미군부대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본격적으로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지촌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로 미군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며, 두번째로 미국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가 기지촌을 중심으로 유포된다는것 그리고 그에따른 청소년 교육의 심각성 또한가지는 기지촌 주변에 가장 크게 형성된 매춘 여성들의 문제, 그속에서의 혼혈아와 AIDS파급 문제등이다.

기지촌 - 미군 범죄의 온상

미군이 주둔한 이후 87년까지 저질러진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미군의 수는 45,183명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등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한미군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기지촌이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기지촌 여성이나 기지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

기지촌에 유입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유입동기가 다양하다.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고아나 과부 또는 미혼모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화 되어갈 무렵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80년대 이후에는 향락 산업의 번창이 주된 유입 동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유입된 여성들의 대부분의 꿈은 미군과 결혼하여 새로운 생활

을 시작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거시와는 달리 본국 귀환 이후 버려져 국제 매춘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동거로 인해 아이가 생긴 경우, 그리고 미군의 약속위반으로 버려진 여성들은 자동적으로 아이의 양육마저 떠맡게 된다. 이렇게 양육을 위해 더욱더 매춘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혼혈아들은 관심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9

기지촌의 또 다른 문제 - 혼/혈/아

전국의 혼혈아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지촌 주변 주변에 무책임하게 뿌려져 자라면서 '양공주 새끼나 트기자식'이니, '깡통이 자식'이니 하는 등의 멸시를 받으며 자라게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족에 대한 배타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며 기지촌의 나쁜 환경속에 자라나면서 유흥가의 건달로 빠져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지촌 활동은..

기지촌 활동은 이러한 기지촌의 현실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가장 크게 유린 당하고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한 매춘여성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해 나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아직 기지촌 활동의 역사가 짧고, 또한 기지촌의 상황 곧 기지촌 여성들이 외부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멸시감등은 기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 기지촌 활동은 어떻게..

기지촌에서 활동의 주요부분은 놀이방, 공부방 활동입니다. 기지촌 주변의 혼혈 아동들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문화적인 혼란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우리의 글과 문화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지촌 문제는 단지 기지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 모두가 풀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아들은 우리가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 만들어 낸 가장 큰 희생자임을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

새내기는 96년의 주인!!!

아침혁명에서는 96년을 참신하게. 힘차게. 꾸려나갈 집행부를 모집합니다. 자신이 공주라고 생각하는 새내기는 다 총여로 모여라.

※참고 ...총여는 궁전이다. 총여 회장, 부회장 그리고 집행부들은 문수 AND 공주 OR 양자

총여의 일당 백 연대사업 부장은 남자다.
그가 하는 말 .. "총여에는 여자만 있는 지 알았다."



01 또 하나의 인권 침해- 성/희/롱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 소송 사건으로 남성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 바 있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2차 항소심 판결 때문이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는 달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성희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희롱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인가!

성폭력이란 여성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인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중에서도 성희롱은 상대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을 놀리거나 당황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나 성적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이다. 성희롱, 넓게는 성폭력에까지 나타나는 여성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마저도 간접적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그러나 성희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성희롱이 거의 잘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또 그 행동이 노골적이기보다는 은밀하게 계산된 의식 혹은 친밀함을 가장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 한 차례의 성희롱이라 하여도 그때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식에 따라서는 치명적이고 깊은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성 중심적 성 문화와 이중적인 성 윤리,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사회적으로 제한된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성은 남편 또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남성에게 생존을 의지

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사회적으로까지 예속됨으로서 남성의 폭력적 성관계에 쉽게 지배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길들여져 온 여성들은 성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희롱은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12

결국 우조교 사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은 객관성으로 은폐된 '남성중심의 시각'이다. 성희롱 사건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판결에서는

'남성위주의 편견이 일반화된 입장을 취한다면 여성의 체계적 경험은 무시되고.... 그러나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 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본으로 삼을 수는 없고, 남녀의 관계를 공동적 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여성주의=남녀관계를 투쟁적 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관점'으로 단순화 시킴으로서 여성주의를 왜곡, 평가절하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평균인'이라는 개념 또한 아직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정치면의 많은 불평등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남편은 아내 보다 우월하고 직장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라고 생각하는 일반 평균인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평균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오히려 '공동적 화합적 남녀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자들이지 않은가?

결국 정의를 가리는 재판부에서조차도 아직 남성우월주의에 젖어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성희롱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누군든지 성희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희롱
= 친밀감 표현(?)**

지닌 2월 6일 유엔 인권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일본군 위안소 관련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대 위안소 체제가 국제법상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했다. 이는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보여왔던 태도에 커다란 썩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번 보고서의 의미도 알아보려 한다.

1970~80년대 국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해 민족 수난사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외화 획득의 명분아래 정부에 의해 조장되었던 관광산업 정책으로 인해 한국여성들에게 자행되는 한국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군 '의안부' 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 국내에서 정신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4월, 한국 교회여성연합회의 “여성과 관광 문화”라는 국제 세미나였다. 이후 1990년 11월 16일에 연대하여 오던 18개 여성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발족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 운동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를 전 사회적인 문제로 폭로, 선전하는 한편 한일 양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여러방면으로 펼쳐 나가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저씨, 서원이름을 패스

여성계, 12월 27일 발매

성희롱 시민연대' 27일

2개년
배이집 세계여성회에서도 성폭행 근
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근
원인들을 마련하도록 각 나라 정부에
추구하는 내용이 동경총회에서도 대
면서 전 세계로 조조 성폭행사건에 대
한 여성계 중의 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9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행 조조**
성폭행 사건 관련자위원회(성폭행)
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의해, **국제여성**
여성회
다채로운
성단체
시민연대 활동
의 동력이 아
시는 것이
공약되어

“나이다”
“하”
“하”

여성계

대책위. 대법원상고 준비·법원외 형의집
...조정 시회분위기 우라...법적 제제 규정

‘생적 괴롭힘’의미 축소해석
‘모멸감’ 피해자쪽 주장외면

[illegible]

卷之四

정대협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켰던 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증언이었다. 그로 인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신대의 만행과 잔학상이 폭로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연대활동은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에 대한 촉구와 철저한 진상 규명 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진행될 수 있다. 일본이 과거 그들이 저질러 놓은 죄과도 청산하지 않은 채 또다른 군사 대국화의 야망을 아시아 각국을 향해 펼치려는 것은 평화라는 이름아래 위장된 거대한 음모임을 밝혀 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정신대 문제가 단순히 과거로 묻혀지고, 끝난 사안이 아니라 그것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부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군국주의의 강화를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대 문제를 보면서 누구나 민족의 자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정책에 의해 여성들이 성폭력 희생물이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지금도 '현대판 정신대, 기생관광 여성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미국·일본인들에게 몸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신대 문제는 분명히 그 진상이 누구에 의해서건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과 여성의 자긍심을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이나 여성들이 다시는 이러한 만행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신대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 기금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 일본군의 국가적 범죄이고, 전시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중대 인권 침해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인식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 인권법, 인도법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도 하지 않고 지원 단체들과 당사자들의 강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사죄와 보상을 외면하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91년 미야자와 기이치총리가 방한하기 직전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군 당국이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획·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8월 무라야마의 총리담화에서는 개인보상과 동떨어진 '평화우호교류계획'을 내세웠다. 무라야마 총리는 개인보상 불가의 이유로 65년 한-일 협정으로 국가간 해결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전후 배상문제와 같이 국가간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므로 국제법상 외교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일본의 관료 우선의 논리와 전후 아시아의 독재정권들과 구축해 놓은 외교 체제에 일질 손 대지않고 자신들의 결합 많은 외교 정책을 합리화 하기 위한 논리이다.

III. 한국 정부의 비자주적인 외교정책

또하나 민간기금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반 민족적인 한국정부의 자세를 들 수 있다. 1993년 8월 4일 한국 정부는 제2차 조사결과 발표와 고오노 담화에서 일본정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금후 외교문제화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외교문제화 안한다는 한국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이 일본정부가 제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결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유린당한 민족의 여성들에 대한 보상이나 문제 해결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고 외교적인 부분만을 들어 굴욕적인 자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IV. 민간기금을 반대하는 이유

민간기금은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기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일본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것

이다.

17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며 증인으로 그들의 고통은 어떤 돈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이 주권과 명예는 일본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를 받아야 하고, 일본은 일본군에 의해 전쟁중에 일어난 조직적 강간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 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
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
으로 정정당당하게 배상하라.”

이것은 역사의 진실속에서 다시는 할머니들이 당한 오욕의 역사를 당신의 딸들이, 손녀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절규인 것이다.

V. 인권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

이번 보고서는 남.북한과 일본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 수락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이를 위한 특별행정 재판소 설치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 공개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 사죄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정 #관련 범법자들을 가능한 범위까지 확인, 처벌할 것 등도 일본정부에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그 외에도 위안부란 용어에 대해서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하여 위안부라는 용어를 **군대를 위한 성적 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VI. 우리의 요구

18

이번 판결에 힘입은 정대협(한국 정신대 대책 협의회)에서는 2월말 토론회를 개최해 일본정부의 사죄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와 지난 1월 24일에는 드디어 200회째 수요시위를 맞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대협의 일본 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구가 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임을 인정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에서 결의하여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금을 철회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사죄, 보상할 것 그리고 범죄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여에서는 수요시위에 함께 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피해자 우리의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2대 아침혁명 총여학생회

●보론 셋●

통일의 걸림돌 - 국가 보안법

<<쑹트>>

모질이의 하루

모질이네 가족은 모두 다섯이다. 동해 한적한 바다에 사는 모질이네 아버지는 며칠전 고기를 잡으러 나가신 이후 소식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형에게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오늘도 근처 농공단지의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수심어린 표정이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어 별일 없을 거라며 전화를 받는다. 중학교 2학년인 모질이는 아버지에게 아무일 없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모순이의 손을 잡고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학교로 향한다. 학교가는 길은 그래도 신이 났다. 모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윤리시간도 있고 방과후에는 윤리 선생님과 학급 신문을 만들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이유 때문인지 학교에서 얼마동안 떠나 있다 돌아오신 윤리 선생님은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친절하고 정이 많다. 방과후 윤리 선생님과 다정히 예쁜 사진도 오려 붙이고 글도 적으며 즐겁게 오후를 보냈다. 그런데 하교 시간에 검은 승용차를 탄 아저씨들이 갑자기 와서는 교무실 윤리 선생님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끌고 나갔다. 너무 놀란 모질이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일일까? 모질이는 그날 저녁 T.V뉴스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든 학급신문이 북한도 사라는 곳이다.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등이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이며 따라서 선생님을 구속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불어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도 동일한 혐의로 내사중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겁이난 모질이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와 함께 공장에 나가는 옆집 순이엄마가 마당으로 뛰어 들어 오셨다. 오늘 공장에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아저씨들이 모여 사장님께 항의를 했단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해방을 의미하는 맑스레닌주의 추종행동이라 같이 있던 어머니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모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던 평범한 우리집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런데 동생 모순이는 웬일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걸까?

모순이는 지난주 미술시간에 농촌 풍경을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뽕으스름하게 그을린 얼굴의 아저씨들이 어깨걸고 붉은 저녁 노을녘에 밭에서 돌아오는 그림을 그렸었다. 그 그림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미술작품 경진대회에 출품되었는데 붉은색을 지나치게 사용한점, 농민들이 어깨걸고 걷고 있는 모습이 적색 혁명을 선동하는 것이란 이유로 의식화 배후를 수사한다고 시내의 경찰서를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모순이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얼마후 같은 곳으로 며칠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가 들어 오시는게 아닌가! 온몸에는 멍이 들고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인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그날 고기가 잘 잡히는 북쪽 방향으로 배를 계속 몰고 가다가 그만 북한 어부들의 배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간첩 점선으로 오인한 해경에 연행된 아버지는 갖은 고문을 당한것이다. 다행히 간첩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잠입 탈출 예비음모와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북한 어부인줄 모르고 고기가 잘 잡히냐는 말을 건넸다가 북한어부가 "아주 잘 잡히고 있음등"하고 대답하는 바람에 반국가 단체 성원과 회합 통신을 한 꼴이 된 것이다.

한편 서울서 대학 다니는 형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부교재로 "자본론"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가다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서울에서 검거되었다. 서점에서 파는 책을 산것이 문제가 될 줄이야!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라고 한 교수님은 또 뭔가?

도대체 모든것이 엉망 진창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모질이는 다음날 갑자기 유명해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며칠후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첩단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4대 일간지의 1면을 머릿기사로 일제히 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질이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었다. 제목은

「가공할 간첩단 사건」

21

온 가족이 복귀의 지령 아래 노동, 농촌 학원에 침투하여 체제전복 활동 벌여.....

온 국민 경악! 심지어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까지 포섭! 배후추적중 달아난 이 조직 중앙의원 모질이 전국 긴급 지명수배.....

모질이는내내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낯선 바닷가를 오늘도 걷고 있다.

‘통일이 되어 선진국이 되지.’

언론에서는 이제 곧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가 다가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이 과거의 후진, 개발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게 된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모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예산의 30%를 국방비에 투자해 가지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여 연구, 개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특수한 조건을 형성해 놓고 있다. 막대한 군사비, 독재 정권의 지속, 외국군의 주둔, 민족 대결을 위한 외국에의 의존과 낭비 등 그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간첩을 잡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만 해도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창의력을 개발할 나이에 군대에 가서 깡통이 되고...

결국 우리의 바램이 실현 가능성 있게 되기 위해선 먼저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전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막걸리 국가 보안법

그러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다. 막걸리 국가 보안법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이는 누군

가 막걸리 먹다가도 잡혀 갈 수 있는 국가 보안법의 남용을 빗대어 한 말이다. 국가 보안법은 그 적용에 있어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목적의식적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고사하고 일반국민의 객기 내지는 우발적인 발언까지도 처벌하였다. 범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검찰과 재판부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걸리식의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 국가보안법은 통일 운동과 반독재 운동뿐 아니라 민중의 생활 깊숙히까지 파고 들어가 발언 하나하나까지도 통제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레드 콤플렉스’, ‘사상 공포증’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할말과 안할 말을 본능적으로 구별하도록 하여 사회비판적의식과 민권의식의 성장을 가로 막았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독재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분단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 학내 여학우 편의 시설 소개

♣참된 자리 휴게실 (학생회관 1층)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는 여학생 휴게실입니다. 이방에서는 신문과 잡지를 배치하고 신문보기 우동의 산실이 될 것이며 한 달에 한번 영화제를 열어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누리방 (도서관 4층)

여학생 전용 휴게실로 공부에 지친 여학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름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의 줄임말 입니다.

♣여학우 탈의실

탈의실은 인문관 1층, 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쉬고 싶을 때 이용하세요. 앞으로 각 건물에 하나씩 탈의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여성 용품 전용 판매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건물마다 하나 씩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판기가 비치된 곳은 도서관 1층, 이공관 2층, 신이공관 1층, 서관 2층, 본관 1층, 생활관 1층, 인문관 1층 등입니다.

♣총여학생회실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언제라도 오시면 맛있는 전통차를 대접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총여로 오세요!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기구니까요!